지상백고좌

선문화수좌복지회 이사장 의정 스님

“청규정신 복원해야 불교 발전 가능”

12면에 이어

“현대사회에 간화선의 전통을 어떻게 계승할 것이냐”는 필자의 질문에 의정 스님은 “서구 문명의 대안이 간화선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미국과 유럽 등 서구 국가에서는 향후 인류를 이끌어갈 제4의 물결이 명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유럽에서 유행하고 있는 명상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열반에 이르는 길은 계(戒), 정(定), 혜(慧) 3학입니다. 계는 바른 도덕이고, 정은 바른 수행이고, 혜는 바른 지혜입니다. 계와 정을 닦을 때만이 혜가 생기는 것인데, 서구국가에서는 오직 정만 하고 있습니다. 심신(心身)을 치유하고자 선정만 닦는 것이지요.”

의정 스님은 서구 국가의 명상수행이 ‘외도선’이라고 정의했다. 중국의 규봉 종밀 선사는 선수행을 5단계로 나눴다. ‘외도선(外道禪)’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려고 닦는 수행이고, ‘범부선(凡夫禪)’은 인과(因果)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시비의 분별을 지닌 채 닦는 수행이고, ‘소승선(小乘禪)’은 자신은 공하지만 법은 실재한다는 생각에 닦는 수행이고, ‘대승선(大乘禪)’은 자신과 법이 모두 공하다는 생각에 닦는 수행이고, ‘최상승선(最上乘禪)’은 자신의 마음이 본래 청정하므로 애초 번뇌가 없다는 생각에 닦는 수행이다. ‘최상승선’을 수행할 때만이 마음이 곧 부처임을 깨달을 수 있다.

의정 스님은 이어서 “〈부처님 없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었다〉라는 책을 출간한 다원주의 신학자인 폴 니터(Paul F. Knitter)의 주장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달라이라마로부터 티베트 불교 전통에 따라 ‘연꽃 치유자’라는 법명과 함께 수계도 받은 폴 니터는 오랫동안 선(禪) 수행을 해왔다. 그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가 열렸던 1960년대 초반에 로마에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전 세계 2000여 가톨릭 주교들이 “다른 종교에도 진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감명을 받았다. 불교 명상교사인 캐티 코넬과 결혼한 덕분에 그는 불교라는 안경을 통해 새로운 그리스도의 진리를 보게 되었다. 엄밀히 말하면 폴 니터는 불교와 기독교를 동시에 믿고 있는 것이다. 그는 최근 유럽과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종교가 불교라는 사실에 주목하기도 했다. 현재 미국은 병원은 물론이고 실리콘밸리 등 회사에도 명상소를 설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정 스님은 “서구 문명이 종언을 고하고 나면 선 수행이 인류문명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양이 인류문명을 선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근대화 때문입니다. 하지만 산업화로 인해 환경피해는 극심해졌고, 자본주의의 발달로 물질만능주의는 팽배해졌습니다. 서양의 사상은 이원론에 기초합니다. 다른 사람을, 나아가서는 자연을 대상화 내지는 도구화함으로써 인류의 위기가 초래된 것입니다. 이원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바로 선불교의 일원론입니다. 간화선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5년 전 독일의 한 신부가 간화선을 공부하기 위해서 용문선원을 찾았다고 한다. 3일 동안

중국불교서 시작된 선농일치 풍조
자연스럽게 선원청규들이 강조돼
깨달음 통한 중생구제 ‘보청법’ 중시
청규정신 복원해 청정승가 구현을

의정 스님과 대화를 나눈 독일 신부는 “독일의 신부들도 밤에는 명상을 한다”고 말했다.

의정 스님에 따르면 깨달음에 이르는 길에는 여러 난관이 있다고 한다. 첫 번째 난관은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눈을 뜬 채로 화두를 들어야 한다. 두 번째 난관은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럴수록 화두에 집중해야 한다. 세 번째 난관은 의심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다가 의심과 의심하는 자신이 하나가 되는 순간 불현듯 화두가 풀리게 된다.

“깨달음에 이르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경허 스님은 3개월 만에 화두를 풀었는데, 잠을 피하기 위해서 칼을 목 밑에 세워두고 정진했습니다.”

의정 스님은 “선불교 수행은 생활선이어서 앉아서도, 서서도, 걸어 다니면서도 어디서든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잠들기 전 5분, 아침에 일어나서 5분이라도 화두를 들어보라”고 주문했다.

“혜가 스님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 달라’고 하자 달마대사는 ‘불편한 마음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혜가 스님은 아무리 찾아봐도 마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기실, 편안하다는 생각도 불편하다는 생각도 망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무심(無心)할 수 있다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무심은 마음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마음속에 망상이 없는 게 바로 무심입니다. 간화선이 바로 망상을 없애서 무심으로 만드는 수행입니다. 한 수좌가 마조 스님에게 찾아가 법을 물었습니다. 마조 스님은 주장자로 마당에 원을 하나 그렸습니다. ‘원 안으로 들어가도 때리고 안 들어가도 때린다. 일러봐라.’ 수좌는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조 스님의 가르침은 출구와 입구를 동시에 막아버림으로써 이분법적 사고를 초월하는 활구(活句)입니다. 간화선의 해답은 이분법적인 사고로는 구할 수 없습니다.”



송담 스님이 전한 달마도에 대해 의정 스님이 설명하고 있다. 송담 스님은 의정 스님에게 ‘판치생모’라는 화두를 내린 바 있다.

의정 스님은 송담 스님으로부터 배운 공안(公案)의 타파법을 설명했다.

“송담 스님은 수행자는 마땅히 대의단(大疑團)이 독로(獨露)하도록 정진을 해서 공안을 타파(打破)함으로써 자기의 면목을 바로 보고, 불조(佛祖)의 면목을 깨닫고, 생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설했습니다. 정진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믿을 수 있는 바른 스승의 지도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안은 분별심(分別心)이나 사량심(思量心)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타파(打破)할 수가 없습니다.”

전강 스님은 “어떻게 하면 그 바른 스승을 간택(揀擇)할 수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어떠한 공안(公案)을 깨달아서 어느 선지식에게 인가(印可)를 받았는지 알면 된다”고 대답했다.

달마 대사의 〈혈맥론(血脈論)〉에는 ‘불급심사(不急尋師) 공과일생(空過一生) 무사자오자(無師自悟者) 만중희유(萬中希有)’이라는 구절이 있다. ‘급히 스승을 찾지 아니하면 헛되이 일생을 보내게 된다. 스승 없이 스스로 깨달은 사람은 만 명 중 한 사람도 있기가 어렵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삿된 스승에게서 배우면 아무리 잠을 안 자고 열심히 수행한다고 해도 삿된 소견에 떨어질 수밖에는 없다. 바른 깨달음은 바른 스승의 지도하에서만 이뤄지는 것이다.

의정 스님은 종단의 발전 방안으로 청규정신의 복원을 꼽았다.

“2010년에 수좌 대표들이 모여서 현대사회에 맞는 청규를 제정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수좌 대표들은 적어도 하루 2시간은 보청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의 중지를 모았습니다. 이 보청에는 포교, 복지, 저작(著作) 등 다양한 활동이 포함됩니다. 현재 승가 공동체가 이판과 사판으로 나눠져 있는데, 수행을 하지 않다 보니 사판승들은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전에는 총림 청규 상 이판과 사판의 역할을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했습니다. 청규정신을 복원해 청정승가를 구현한다면 종단이 신도들은 물론이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의정 스님은 현재 재단법인 선원수좌선문화복지회 대표이사를 맡고 있기도 하다. 선원수좌선문화복지회는 수좌스님들이 출가에서 열반까지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복지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서 2012년 설립된 단체이다.

의정 스님은 전국선원수좌회를 대표해 조계종립 특별선원인 문경 봉암사에 세계명상마을 건립을 주도해왔다. 2018년 봉암사 조실 적명 스님과 의정 스님이 첫 삽을 뜬 문경 세계명상마을은 8만4000여㎡(2만5410평) 부지 위에 명상홀, 리조트형 명상숙소, 개인 수행처, 무문관 등 1만1000㎡(약 3360평)의 시설이 건립돼 300여 명이 동시에 숙식하며 수련할 수 있다. 국제 공모로 당선된 토마스 한라한 미국 플랫대 건축학과 교수가 설계한 건축물은 단아한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다.

문경 세계명상마을 운영에 대해 의정 스님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간화선에 관심을 갖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조계종 총무원과 전국선원수좌회가 합심한다면 문경 세계명상마을은 세계인의 명상센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 스님과의 인터뷰를 마치고 상원사를 빠져나오다가 소요(逍遙)하듯 천천히 포행을 하는 수좌스님들을 보았다. 동선을 하고 있는 수좌스님들을 보려니 오현 스님의 ‘면벽의 달마’의 한 구절이 떠올랐다.

‘우러러 일방(一榜)이라면 해 하나 달 하나를 갈대 한 잎 타고 도강(渡江)한 또 하나의 집념 그도 그 갈대가 되어 바람결에 흔들리고.’

용문선원의 산길에는 달마 대사가 서역에서 가져온 한 물건이 무엇인지 궁구(窮究)한 끝에 바람의 일방에 활연대오(豁然大悟)한 수목들이 녹음(綠陰)의 이파리들을 흔들면서 서로 염화시중의 미소를 나누고 있었다.

유응오 / 작가

NEW “식물성 연꽃향 양초”

오랜 시간 완벽한 배합 비율을 연구, 개발하여
2024년 향긋한 연꽃향 양초를 출시하게 되었으며, 다년간의 개발 및 연구를 통해
완성된 “식물성 연꽃향 양초”를 스님과 불자 여러분들께 평가를 받고자 합니다.
또한 신제품 “식물성 연꽃향 육각초”는 연소시 중앙부만 연소되는 단점을 완전히 보완하여 전부 연소시킵니다.
연꽃향양초 샘플이 필요한신 분은 전화번호, 성함, 주소를 010-5265-5118로 문자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식물성 연꽃향 육각초



특 大(대) 7.5Φ×41㎝ 16개 120,000원
大(대) 8.5Φ×33㎝ 20개 140,000원

식물성 연꽃향 양초



〈원기둥〉 7.4Φ×29㎝ 20개 120,000원
〈돈타레〉 5.6Φ×26㎝ 30개 105,000원
〈밀대〉 4.7Φ×24㎝ 40개 92,000원

「해광양초는 국내 유통중인 모든 양초를 제조 판매합니다.」

신제품 반야심경 디퓨져

한글로 새겨진 반야심경 디퓨져는 오랜 잔향을 남기어 일상생활 속 귀한 기운을 갖게 도와줍니다.



연꽃디퓨져
연꽃디퓨져 연꽃처럼 예쁜 향기로 깨끗하고 맑은 기운을 선사합니다.
침향디퓨져 뇌를 깨우고 지친 마음을 치유하여 고요한 기운을 전합니다.
침향디퓨져 100㎖ 디퓨져 29,000원 / 200㎖ 디퓨져 39,000원

신제품 도자기 (초)받침

*기존 촛대 안에 넣어 사용하는 제품으로 양초의 기울어짐을 방지하고 청소가 간편합니다.



NAVER 해광양초 해광산업 상담문의 010-5265-5118 / 031-333-024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매산리 416-8 (이일로 112-6)